

해검 언니를 처음 만났던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당시 우리집은 고모네와 아주 친밀해서, 주말이면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달려 고모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같이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도 했다. 고모부는 유명한 전자회사에 다닌다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설명해주곤 했는데, 어린 눈에는 그냥 장난기 많은 아저씨에 불과했기 때문에 달리 대단히 여기진 않았다. 고모에게는 두 살 터울의 아들 두 명이 있었고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어렸을 땐 술래잡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곤잘 놀곤 했지만, 해가 갈수록 그들은 나를 귀찮아했다. 나 역시 재미없어 보이는 교복을 입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 그들과 놀고 싶진 않았으나, 오빠들의 기분을 풀어주는 살갑고 애교 많은 여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때문에 방으로 쫓아가 놀자고 조르곤 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내게 낯은 게임기나 곰 인형을 던져주고 둘이서 소리를 지르며 총을 쏘대는 게임을 했다. 그즈음 엄마는 둘째만은 아들로 낳아야한다는 할머니의 저주 비슷한 요구에 시달리는 중이었고, 고모네를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어떤 부채감을 씻어내려는 듯 연거푸 ‘우리 무영이는 혼자라도 오빠들 있어서 안 외롭겠다 그치?’하고 물었다. 그러면 나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대충 고개를 끄덕거리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구경하곤 했다.

그날도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고모네로 향했다. 익숙하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 엘리베이터 15층을 누르고, 현관문 초인종까지 내가 눌렀던 기억이 난다. 평소보다 반응이 늦어 초인종을 한 번 더 누르려는데, 벌컥 문이 열리더니 낮선 얼굴이 튀어나왔다. 올려다본 곳엔 머리를 한 갈래로 묶고 무릎을 살짝 덮는 치마에 빨간 스웨터 안으로 흰 셔츠를 목 끝까지 잠근 여성이 문을 잡은 상태로 멈춰서 있었다. 액면가로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법했지만, 지나치게 정적이고 평온한 미소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였다.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한 엄마가 어머 죄송해요, 하며 나를 끌어당겼지만 나는 곰인형처럼 새까맣고 동그란 눈동자에 압도되어 멀거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여자는 느릿한 동작으로 무릎을 굽히고 앉더니 나와 눈을 마주했다. 그리곤 선서를 외치듯 오른손을 펴보였다.

안녕. 네가 무영이구나.

가까이서 본 그는 뭐랄까, 아주 잘 만든 인형 같았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모양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의 미세한 주름들은 어떤 규칙을 따라 그려진 느낌이었다. 덜컥 겁이 나 주춤 물러서려는 찰나,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고모부가 걸어 나왔다.

놀랬지? 들어와.

고모부의 말이 신호라도 된 것처럼 여자는 다시 느릿한 동작으로 일어나 우리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멍하니 서 있던 엄마가 순간의 정적을 깨고 가볍게 웃었다.

아유 난 또. 잘못 찾아온 줄 알았잖아요.

그러게. 가정부 들이셨어요?

현관으로 들어서며 아빠가 묻자, 고모부는 다시 야단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사람 같지.

네?

당황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고모부는 신나 죽겠다는 듯 다시 크하하 웃었다.

로봇이야, 재.

예?

엄마가 커진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로봇이라는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바라본 채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새카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잘 만든 인형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잘 만든 인형이었다. 웃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는 인형. 그게 해겸 언니였다.

고모부는 이번에 회사가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 완성한 인공지능 가사로봇을 실험용으로 임원들에게 배부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저랬다는 거지, 고모부는 불가해한 전문 용어를 뒤섞여가며 몇 시간을 거들먹거렸다. 엄마가 대단하다는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자 고모는 “찹찹한테 편하긴 하더라고”하며 수줍은 듯 웃었다. 그리곤 거실에 서 있던 로봇, 이라고 하는 것에게 손짓했다.

해겸 씨, 냉장고에 있는 사과 좀 깎아 줘.

엄마는 냉장고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탄성을 내뿜었다.

이름이 해겸인가봐요.

아, 무슨 아이돌 이름이라던데. 첫째가 좋아한대서.

고모는 그렇게 말했으나 정작 두 형제는 새로 들인 로봇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다는 양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사과를 능숙하게 깎아내리는 새하얀 손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무영이는 이제 언니도 생겼네.

그러네. 해겸 언니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치? 불러봐 봐. 언니, 하고.

엄마가 과장한 목소리로 나를 부추기는 바람에 나는 얼굴에 해겸 언니, 조그맣게 불렀다. 그러자 사과를 깎던 손이 우뚝 멈추더니 해겸이 나를 돌아보았다. 당연하게도 해겸은 웃고 있었다. 어떤 적의도 요구도 없는 웃음.

안녕. 무영아.

해검은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이상하지만, 나는 그 손이 따뜻했다고 기억한다. 그 집에서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는 건 해검이 유일했다. 그러니 해검이 해검 언니가 된 것은, 내가 해검 언니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

해검 언니가 그 집에 있게 된 이후로 나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검 언니가 나를 특별히 즐겁게 놀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가사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해검 언니에게 아이를 놀아준다는 ‘설정값’은 당연히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놀이라곤 내가 나의 인형들을 소개하는 것을 해검 언니가 가만히 들어주는 정도였다. 애는 예뻐야. 예뻐는 강아지 인형이야. 애는 장군이야. 장군은 곰인데 예뻐의 오빠야. 그런 실없는 이야기를 하면 해검 언니는 예뻐는 강아지구나, 장군은 곰이구나, 예뻐의 오빠는 장군이구나, 하는 동어 반복의 대꾸들을 해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해검 언니는 “예뻐는 장군의 동생이지?”하고 물었고, 나는 신나서 그렇다고 대답한 뒤 다시 새 인형들을 소개시켜주곤 했다. 그 집에서 나는 질문과 요구에 답할 뿐 나의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해검 언니 앞에서 나는 쉬지 않고 떠들었고 해검 언니는 나의 말을 끊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싫다고 떼를 쓰며 울기도 했다. 엄마는 울어 젖히는 나를 겨우 차에 태우고서 더는 언니가 생겨서 외롭지 않겠다고 물어보지 않았다. 말없이 내 머리칼을 쓸어주는 엄마의 얼굴은 누구보다 외로워보였다.

하루는 웃는 얼굴이 그려진 하트 모양의 인형을 해검 언니에게 들고 간 적이 있었다. 애는 하트야, 하고 내가 말하자 해검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음 인형을 소개하려 하자 해검 언니는 고개를 가웃했다.

그리고?

응?

하트는 무엇이야?

나는 덩달아 고개를 가웃거렸다.

하트는 하트야.

그리고?

응?

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해검 언니는 손가락을 펼치고는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예뻐는 강아지야. 장군은 곰이야. 토순이는 토끼야. 하트는 무엇이야?

그렇게 묻는 언니의 얼굴은 무구했다. 11년 인생 가장 난감한 질문을 받은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더듬더듬 입을 뗐다.

하트는... 하트는 마음이야.

마음?

응. 마음은 인간한테 있어.

중요한 거야?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고개를 크게 끄덕여 보였다.

응. 엄청 중요해.

엄청?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

해검 언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무영아.

응?

마음은 어디에 있어?

나는 어렵지 않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내 가슴 중앙을 가리켰다.

여기.

해검 언니가 나를 따라 자신의 명치 쪽으로 손을 올렸다.

쿵쿵 거리는 게 마음이야.

쿵쿵?

응. 마음은 쿵쿵거려.

해검 언니는 가슴에 손을 올린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나한테는 없어.

언니는 언제나 그랬듯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언니가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 새하얀 손을 내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언니의 손은 미묘하게 온도가 낮았지만, 결코 차갑지는 않았다. 언니의 손 위로 내 손이 포개졌다.

이거야.

심장의 울림이 언니의 손을 거쳐 내 손까지 닿는 듯했다. 언니의 새카만 눈동자가 멈춘 듯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언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언니는 한참 뒤에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해겸 언니와 나는 우리만의 세계를 점점 만들어갔다. 언니는 더 빠르게 인형들의 이름을 외웠고 알고 있는 단어들은 풍부해졌다. 모든 인형을 소개한 뒤로 나는 동화책을 가지고 가 언니에게 보여주었다. 고모부는 해겸 언니가 내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에서 큰 칭찬을 들었던 것인지, 고모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겸 언니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기 시작했다. 해겸 언니가 집에 있는 동안 청소나 빨래를 해주었기 때문에, 처음엔 달갑지 않아 하던 엄마도 나중에는 언니를 기다렸다. 언니는 나에게 떡볶이나 딸기 주스를 만들어주었고,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에는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하트 모양의 그 인형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가방에 매두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새로운 학원들을 등록했다. 그즈음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 때문인지 고모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모부는 우리집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통해 실험에 성과를 내려는 건지 더 자주 해겸 언니를 우리집에 보내주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고요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해겸 언니만이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다 불어버린 떡볶이를 앞에 두고 나를 반겼다. 그래도 해겸 언니가 있어서 불이 켜진 집으로 돌아와 식지 않은 밥을 먹는 날이 있기도 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해겸 언니는 늘 똑같았지만, 고모부의 회사 상황은 나쁜 쪽으로 변해갔다. 해겸 언니와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은 기본적인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탁월했으나 복잡한 상황을 능숙히 처리하진 못했다. 의류의 유형에 맞게 세탁기를 돌릴 수는 있어도 손빨래까진 인간의 몫이었고 요리 기능이 있긴 했지만 로봇이 불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거리낌을 느낀 사람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집 안에서 로봇과 함께 생활한다는 점, 그 로봇이 너무 인간과 닮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표현했다. 로봇은 로봇이어야 하지 감히 인간을 넘보면 안 된다는 반발이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의 손이어야 한다, 로봇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침해이자 로봇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식의 논쟁들이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벌어졌다. 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로 ‘가사로봇의 육아 가능 여부’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찬성팀에 들어갔다. 반대팀에 들어가는 것은 해겸 언니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무엇보다 해겸 언니는 나의 존엄성을 해친 적이 없었다. 언니는 그 집의 어떤 인간들도 내게 주지 못한 것들을 주었다. 언니는 나에게 웃음을, 대화를, 따뜻한 밥과 인사를, 애정을 주었고 그것을 받으며 나는 자랐다. 그러니 언니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토론은 찬성팀의 대참패로 끝이 났다. 반대팀은 로봇이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식의 각종 SF영화와 인간의 우월성과 존엄성에 관한 법적, 사회학적 근거들을 언급했다. 나는 로봇과 인간의 유대 관계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해겸 언니와 나를 사례로 들었으나, 곧장 반박이 들어왔다. 반대 팀의 대표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로봇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우월한 특성입니다.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간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영 학생이 말씀하신 유대관계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무영 학생이 얘기해주신 로봇은 버튼만 꺼버리면 무영 학생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로봇은 인간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웃기지만 나는 그제야 해겸 언니가 로봇임을,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럼 무영이는 그 로봇을 정말 언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토론이 끝나고 아이들이 순진한 얼굴로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었다. 식탁에는 어김없이 해겸 언니가, 세 가족 분의 식사를 차려두고 앉아있었다.

무영아. 밥 먹어.

나는 언니의 새카만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식탁을 지나쳐 내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다가 언니가 만들어준 하트 모양의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간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영 학생이 말씀하신 유대관계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해겸 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나의 유치한 착각이라는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화가 났다. 언니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화가 났다. 언니는 로봇이었고, 나는 그게 부끄러웠다. 우리가 부끄러웠다.

나는 언니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대로 잠에 들었다. 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나를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다. 언니는 임무를 마친 군인처럼 일어나 돌아갔을 수도 있고, 밤이 새도록 거기에 혼자 앉아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아침에 일어나보니 언니는 없었고, 세 명 분의 식사 위에는 해겸 언니가 직접 수를 놓아 만든 식탁 덮개가 놓여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국을 내려다보면서 다시는 해겸 언니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언니를 좋아하게 된 일처럼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고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해겸 언니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 했으나, 왜인지 해겸 언니는 그날 이후 우리집에 오지 않았다. 언니를 보지 못한 지 2주가 지날 즈음에야, 나는 아빠에게 해겸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아빠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언니가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집?

해겸 씨가 워낙 특출나서... 고모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시킨다고 데려갔대.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한 번 말해볼게.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언니를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보다 후련함이었다. 의미 없는 동어 반복의 대화를 할 일도, 식어버린 밥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언니를 보고 희미한 죄책감을 느낄 일도 없다는 후련함. 나는 고개를 저어보였다.

됐어, 중요한 일이라는데 뭐.

그때였다. 묵묵히 밥을 먹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 숟가락을 집어 던진 것은. 밥풀이 묻은 쇠숟

가락은 아슬아슬하게 내 옆을 지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처박혔다. 나는 굳어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엄마의 두 눈이 보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엄마는 치를 떨면서,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다.

역겨운 놈들.

엄마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잠시 굳어 있다가 덩덤한 얼굴로 일어나 엄마가 던진 숟가락을 집어 들고 싱크대에 넣었다.

무영아.

아빠는 식탁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좀 아파.

...어디가?

그냥... 마음이 좀 아파.

왜?

아빠는 불안한 듯 두 손을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무영이 동생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거 알지. 근데 그게 안 돼서 엄마가 좀 힘들어 해. 그러니까 무영이가 엄마 좀 돌봐줘.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나를 낳는데도 몇 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낳은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서, 엄마가 늘 할머니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모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엄마는 나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고 자신도 돌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그렇게 말라가는 걸까. 나는 여기 있는데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나는 엄마와 해겸 언니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란 그뿐이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아주 조금씩, 반박할 여지없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버티고 버티다가 내가 서울의 대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아빠는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몇 년을 끈 것치고 지나치게 깔끔한 끝이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엄마는 이모가 살고 있는 남해로 내려갔고 아빠는 회사 근처의 빌라로 이사를 갔다. 교내 기숙사로 짐을 옮기는 날, 마지막으로 세 가족이 모인 그 날에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다. 어린 나의 머리칼을 쓸어주던 때와 같은 외로운 얼굴로.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다. 기숙사에서 혼자 잠들던 밤이, 생각만큼 후련하진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에 그어진 빗금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해방되었구나. 누군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게도 전원버튼이 있어서 꺼버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은 생각만큼 즐겁진 않았지만, 내가 뭘 하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은 썩 괜찮았

다. 중고등학생 때 나는 질문하기보다 답을 하는 사람이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하면 뛰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했다. 토 달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다물었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 감았다. 대학생이 되면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입을 열고 말을 해야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정치를 욕하고 역사를 배우고 글을 쓰는 모임을 찾아갔다.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인간이라면’이라는 말들을 쉽게 내뱉었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묘한 흥분을 느꼈다. 나를 정당화하는 말을 찾은 기분이었다. 나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언가 고상하고 존엄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해겸 언니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해겸 언니는 로봇이잖아.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 인간과 달라. 인간이랑 같다고 생각해선 안 되지. 그러니까…… 해겸 언니와 보낸 시간은 가짜야. 가짜일 뿐이야. 나는 떠오르는 대로 그런 생각을 했고, 모임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몸 안이 텅 빈 것만 같아서, 마음이라는 게 거기에 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해져서, 바람에 달아 차가워진 눈물을 속속 닦아냈다.

스무 살이 구멍 난 독에 물을 부어대는 일이었다면, 친구가 생기고 전공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한 스물한 살부터는 조금씩 내가 쌓이기 시작했다. 내 말과 내 글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하고 싶은 질문을 하고 하기 싫은 답을 하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그렇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해겸 언니를 찾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해겸 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순간에야말로 무너져 내리기 가장 쉽다는 것은 알지 못했으니까.

해겸 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실시간 검색어에 ‘해겸’이라는 이름이 떴기 때문이었다.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내가 아는 해겸 언니일까 싶어 검색어를 클릭해보니,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해겸 언니의 이름이 고모네 형제 중 한 명이 좋아하던 아이돌에게서 따왔다는 걸 떠올렸다. 해겸 언니와 묘하게 닮은 그 아이돌은, 전날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악플러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몇 개의 연예기사의 톱픽이 되어있었다. 기사의 댓글에는 “힘내요”, “우리 해겸이 꽃길만 걷자”, “예쁜 말만 보자”와 같은 응원과 함께 “뜨려고 쇼하네”, “저런 애들도 아이돌을 하네”와 같은 악플이 달려있었고, 악플 밑에는 또 다시 “이런 기사에도 악플 다는 인성 ㅈㅈ”과 같은 식의 대댓글이 달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었다. 나는 이제 막 이십 대 초반이 되었을 법한 앳된 얼굴을 보면서, 해겸 언니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내가 변해가는 동안 언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지금은 어떨까. 여전히 빨간 스웨터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을까. 회사에서 맡았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언니를 찾아가자고 생각한 이유는 그뿐이었다.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우월감. 언니는 그러지 못하지만, 나는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우월감.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 그걸 확인받기 위해. 오로지 나를 위해.

난항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나는 금방 해겸 언니와 관련한 소식을 찾아냈다. 고모부가 다니는 회사 이름과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하니 몇 달 전쯤 올라온 <신수전자 인공지능 가사 로봇 ‘H-Pros’, 육아 로봇으로 재활용 가능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사에는 몇 년 전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량 폐기되었던 신수전자의 인공지능 가사 로봇 ‘H-Pros’ 중 샘플용으로 남아있던 초기 모델이 경기도 외곽 지역의 보육원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언니와 같은 로봇들이 대량 폐기되었다는 것도, 언니의 공식 이름이 'H-Pros'라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는 해검 언니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기사를 읽어갔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H-Pros'의 모습”이라는 설명 아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해상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사진 속 로봇이 하늘색 티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검 언니라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화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스스로 개발한 것은 해검 언니가 유일했다고, 고모부가 으스스대며 말했었기 때문에 나는 일말의 가능성으로 기사에 나온 보육원을 찾아갔다. 다짜고짜 해검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 뭇해서 봉사 신청을 하러 왔다고 설명했더니, 온화한 인상의 원장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며 보육원을 소개시켜주었다.

여기는 아픈 기억이 있는 애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내가 중요한 후원자라도 되는 듯이 원장 선생님이 부뚝한 어투로 말했다.

아픈 기억이요?

아, 모르고 오셨나요? 여기가 성폭력 피해 아동들 같이 치료하는 곳이거든요.

아...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원장 선생님은 손사래를 쳤다.

유별나게 행동할 필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이 한순간 단호해져서, 나는 나도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란 복도를 걷는 동안 조곤조곤한 말소리와 아이들의 고함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열한 살의 어린 내가, 해검 언니가 곁에 있던 내가 떠올랐다. 이상했다. 울컥울컥 속 안에서 무언가가 밀려왔다. 나는 원장 선생님을 붙잡았다.

왜 그래요?

저, 혹시 여기...

네?

로봇... 있지 않나요?

로봇이요?

원장 선생님은 나를 가만히 보더니 아, 해검 씨. 하고 깨달은 듯이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아서, 숨을 급하게 들이켰다. 원장 선생님은 다시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우리끼린 해검 씨라고 부르거든요. 몇 달 전에 기자도 왔었는데 영 로봇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그건 왜 물어요?

아... 이런 말 이상하겠지만, 제가 해검 언니랑... 아는 사이라서요.

아는 사이. 내가 그 정도의 표현을 썼다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 오늘.

뭐가요?

그게, 오늘 오전에도 누가 해겸 씨 아는 사람이라고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원장 선생님은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가 해겸 언니를 찾아올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이상하게 엄마가 거기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였을까? 왜 나는 그때 엄마가 손가락을 던지며 화를 내던 때를 생각했을까? 왜 엄마가 왜 아빠를 보고 역겹다고 한 건지, 왜 해겸 언니 이야기에 그렇게도 화를 낸 건지, 갑자기 그게 왜 이상하게 느껴졌을까? 왜 그제야, 모든 게 지나버리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

아, 다 이야기하셨나 봐요.

원장 선생님의 말과 동시에 누군가 교실 문을 열고 나왔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얼굴. 6년 만이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집은 고모네와 이상하리 만큼 친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간다는 말에 친구들은 놀라곤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순간 끊어져버릴 수 있었을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해 내게 놀러오라고 말하던 고모는 해겸 언니가 사라진 이후로 한 번도 나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엄마가 과호흡으로 쓰러져서 입원한 날에도, 내가 대학교에 합격한 날에도,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날에도, 나에게 안부 인사 한 번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집과 그렇게 친했는데. 매주 주말 밤을 함께 보냈는데. 그랬는데 고모,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 물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그 모르는 것이 나를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고모의 얼굴을 본 순간 깨닫게 되었으니까.

*

미안하다 무영아. 나는... 나는 정말 몰랐어. 언젠가부터 너희 엄마가 우리집에 오지도 않고, 너희 아빠랑 분위기도 안 좋아서 그냥 싸운 줄 알았지. 그게 일주일이고 2주가 넘어가도... 워낙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한테 아들 낳으라고 다투잖니. 그것 때문에 우울한 줄만 알았다. 근데 너희 아빠가... 그런 줄은 몰랐다. 나도 처음에는 듣고 너무 충격이라서... 너희 아빠가 나한테는 남동생이기도 하니까. 근데 너희 아빠도 술 마시고 그랬다니까... 부부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아. 다들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근데 해겸이 일 있고... 너희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우리 애들한테 더럽다는 식으로 말을 심하게 하지 않니? 나야 그냥 한 마디 한 거야. 혈기왕성한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해겸이 개는... 인간도 아닌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 내가 바보지. 너희 엄마가 그렇게 해겸이 일에 열을 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해겸이랑 자기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지, 나는. 그렇잖아. 사실, 해겸이가 인간이 아닌 건 맞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너희 엄마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글썽 날더러... 범죄자

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막말로 너희 아빠가 한 일이지 나는 뭘 했니? 애들 잘못 키운 거야 내 죄지. 근데 해겸이랑 자기가 어떻게 같니?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 악몽을 자주 꾸더라 내가. 생각을 해보니 미안하더라고. 해겸이가 아무리 로봇이라도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렇게 쫓아 보낸 게.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 친했는데 이렇게 된 게 참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온 거야. 그래도 해겸이가 로봇인 게 참 다행이지. 지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영아, 엄마한테 말 좀 잘 해줘. 나는 다시 잘 지내고 싶어 너희 가족 이랑. 우리 잘 지냈잖아 응?

문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고모를 보내고 난 뒤, 나는 해겸 언니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나는 내 머릿속에 있던 모든 기억들을 게워냈다. 해겸 언니에게 소개시켜준 인형들의 이름, 내가 들었던 모든 언어들을.

예뻐. 장군이. 토순이. 리나. 리치. 리리. 곰이. 토토. 레미. 하트. 로봇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영아 무슨 책 읽어줄까?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우월한 특성입니다. 무영아 졸업 축하해.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간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영아 여기 와서 밥 먹어. 떡볶이도 먹어. 무영 학생이 말씀하신 유대관계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영아 왜 이제 인형 없어? 솔직히 무영 학생이 얘기해주신 로봇은 버튼만 꺼버리면 무영 학생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무영아 토순이는 쓰레기가 아닌데. 결국 로봇은 인간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무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정말 끔찍했던 것을 말해볼까.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아픔이라는 것.

그 와중에도 내가 느꼈던 알량한 배신감과 외로움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 해겸 언니에게 사과하러 간 고모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

나에게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인간이라서. 끔찍하고 역겨운 인간이라서. 집으로 돌아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말도 글도 죄다 버린 채 꺼져버린 기계처럼 침대에 누워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 나는 생각했다. 가만히 있자. 먹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죽은 듯이 그렇게 있자. 그러다보면 나는 인간이 아닌 것이 되고…… 그래, 그저 가만히 인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면 된다. 해겸 언니를 만나기 전처럼,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된다. 뛰지 않고 토 달지 않고 입 다물고 눈 감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용서를 빌자. 끝까지 인간처럼. 끝까지 인간답게.

나는 모든 수업과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나를 찾는 채팅방을 나갔다. 보육원에서 봉사신청을 확인하는 전화가 몇 통 왔지만 받지 않았다. 아빠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니 우습게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루 종일 자취방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다가 잠에 들고 간간히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셨다. 생수가 떨어지자 수도물을 마셨고 그렇게 3일쯤 지났을 때 몸에 있는 모든 것을 게워냈다. 5일 째가 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허기 때문에 냉장고에 쌓여있던 반찬과 밥을 먹었고 그걸 먹고 앉아있는 내

가 역겨워서 토하기를 반복했다. 결석이 반복되자 지도 교수님은 내게 몇 번 씩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구했다. 별 수 없이 면담을 하러 학교에 갔을 때는 해검 언니를 찾아간 날로부터 3주 정도가 흐른 상태였다. 건강 핑계를 대고 휴학을 신청한 뒤, 나는 카페에 들러 마시지도 않는 아메리카노를 시킨 채 창가에 앉아 밖을 구경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저렇게 바빠 걷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웃고 쉽게 울까. 그게 무슨 의미이기에. 무슨 소용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던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해검이라는 이름만은 분명해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다.

미친, 죽었대.

화면 액정으로 낮익은 얼굴이, 해검 언니를 묘하게 닮아있던 옛된 얼굴이 보였다. 기사의 헤드라인이 보였다.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뭐야, 진짜야? 악플 때문에? 와, 대박. 미쳤다. 소름 돋아.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묘한 흥분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무한한 인간들. 자기 몫의 마음을 가슴 안에 달고 사는 인간들. 그따위 것을 달고……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우월한 특성이라고? 야, 웃기지 마. 뭘 안다고 지껄여.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야. 저 혼자 아프고 저 혼자 생각할 줄만 알아서 끔찍해지는 게 인간이야. 더럽고 역겨운 것.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 언니, 인간은 그런 거야.

나는 해검 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해야 할 말이, 돌려줘야 할 것이 있었다.

*

원장 선생님은 몸이 안 좋아져서 봉사를 오지 못했다는 나의 말을 믿어주었다. 내가 보기에든 나는 당장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상해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해검 언니가 지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따뜻한 차를 건네줬다. 해검 씨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셨고, 나는 땀을 흘리다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동생이요.

원장 선생님께서 뭘 더 물으려는 찰나, 푹푹 하고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오셨나봐.

처음 만났던 때처럼, 언니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쪽으로 모은 머리칼과 하늘색 티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해검 언니.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언니의 얼굴에는 미동이 없었다.

앉아서 얘기해요.

원장 선생님이 나가고, 해겸 언니는 느릿한 동작으로 걸어와 나의 앞에 앉았다. 누군가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미소와 일정한 모양으로 헝클어진 머리, 정교하게 그려낸 주름, 인형처럼 새카만 눈동자가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차를 마시는 동안 언니는 멈춰진 채 가만히 내 쪽을 응시했다. 한참 만에 내가 입을 뗐다.

언니... 나, 무영이야.
안녕. 해겸이라고 합니다.

생각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자신에게 소름이 돋았다.

줄 게 있어서, 왔어.

나는 가방을 열고 언니가 나에게 만들어주었던, 하트 모양의 조그만 인형을 꺼냈다. 때가 배이고 실밥이 부분부분 끊어진 그것을 건네자 언니가 느릿하게 손을 뻗어 받았다.

이게 무엇이에요?
하트.
하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트는 마음이야.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골랐다.

마음은... 언니, 마음은 말이야.
네, 듣고 있어요.
마음은 쓸데없는 거야. 끔찍한 거야. 인간처럼.

언니가 고개를 가웃했다. 숨이 자꾸 가빠졌다.

인간은 끔찍한 거야, 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더러운 거야. 인간은 다 쓸데없는 거야.

나는 덜덜 떨면서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따라해 봐, 언니. 인간은 더럽고 쓸모없다고. 인간은 끔찍하고 역겹다고. 언니. 따라해 보라니까...

언니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봤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언니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

언니는 몸을 일으켜 내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언니의 새하얀 손이 내 가슴 중앙에 얹어졌다. 언니의 손이 맞닿은 곳으로 쿵쿵쿵, 하고 파동이 번졌다. 따뜻했다. 언니의 손이, 소스라칠 만큼. 도망치지 못할 만큼. 언니가 나를 보고 슬며시 웃었다.

여기 있어, 무영아.